

포용적 금융과 우체국금융의 효율적 운영 방안

박 지 현*

최근 폐막한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및 국내의 새 정부 출범이후 ‘포용적 금융’이 다시 한 번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포용적 금융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발표하였고, 발표 후 이에 대한 추진 일정 및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시중은행들도 대부분 포용적 금융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고 2018년도 중요한 전략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고에서는 왜 계속해서 포용적 금융이 끊임없이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포용적 금융이란 무엇이며 국내의 포용적 금융 추진 현황은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포용적 금융의 주요 방안 중 하나인 서민금융시장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체국금융의 포용적 금융 추진 방안에 대한 제언을 토대로 마무리한다.

I. 서론

2017년 7월 금융위원회에서는 ‘포용적 금융’의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포용적 금융은 최근 정부에서 이에 대한 방침을 발표한 이후 많은 금융기관들에서 이에 대한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등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포용적 금융이 새롭게 제시된 단어가 아니며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과 동일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금융포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국제공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최근까지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 우체국금융개발원 금융연구팀 전임연구원, jhpark@posid.or.kr

전 세계적으로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으로 금융포용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본 논고에서는 금융포용의 맥락에서 포용적 금융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우체국금융과 연관시켜 우체국금융의 포용적 금융 방향에 대한 제언도 함께 하고자 한다. 우체국이 보유한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정부조직이라는 특색을 고려해 볼 때, 우체국을 활용한 포용적 금융의 실행은 그 범위 및 실효성이 상당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미 해외에서는 금융포용 정책을 실행하는 주요 기관으로서 우체국을 인정하고 우체국이 해당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고에서는 우체국에 초점을 두고 포용적 금융에 대하여 알아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되짚어보고자 한다.

II.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

“빈곤 퇴치, 고용 창출, 양성 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의 촉진제로서 포용적 금융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우리는 포용적 금융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노력을 지지한다.”

위의 글은 최근 폐막한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선언문 중의 일부이다. 최근 이러한 움직임을 계기로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포용적 금융에 대한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렇듯 해외와 국내에서는 포용적 금융을 강조하며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체 포용적 금융이란 무엇인가?

본 절에서는 포용적 금융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에 대한 배경 및 현황, 그리고 시중금융기관들의 포용적 금융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알아본다.

1. 포용적 금융의 개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저성장·양극화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국외에서는 중산층의 소득 감소 및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국내에서는 양극화 현상 심화와 청년층의 실업률 문제가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빠른 진행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무쌍한 시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의 중요성이 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공익적 역할 강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강화와 금융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포용적 금융에 대해서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이라는 용어로 국내의 학계 및 기업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포용적 금융과 금융포용은 영어 단어가 같고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거의 동일하다. 그러므로 두 용어가 다른 용어라기보다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고에서는 최근에 보다 더 많이 통용되고 있는 용어인 ‘포용적 금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포용적 금융이란,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을 높여 취약 가구 및 기업에 대한 기회를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¹⁾ 기존의 금융에서는 고소득·고신용자에게 기회가 집중되고, 저소득·저신용자는 기회가 제한되거나 또는 고금리위주의 대출로 내몰리는 측면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융 소외²⁾자가 발생하지 않고 포용적 금융이 되려면 기존 금융회사로부터 소외된 계층까지 금융의 범위 안에서 함께 동반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대상을 타겟으로 포용적 금융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 및 국외의 경우, 어떠한 활동 및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음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포용적 금융」 추진배경 및 향후계획, 금융위원회 기자간담회 자료, 2017. 7. 26.

2)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란, 제도권 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로부터 배제된 상태를 의미

2. 국내·외의 포용적 금융 현황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정상선언문을 통하여 빈곤해소, 일자리 창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포용적 금융이 중요함을 재차 확인하였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포용적 금융의 진전을 위하여 금융포용 파트너십(GPFI³⁾)이 마련한 성과를 지지하며, 특히, 「2017 G20 금융포용 액션플랜(Financial Inclusion Action Plan)」을 마련하였다. 해당 액션플랜은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G20이 중점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분야별 과제로는 중소기업금융·금융규제·금융소비자보호·결제시스템 등 4개 분야에 대한 9개의 과제와 디지털화에 따른 혁신적 접근, 민간부문과의 협업 등 공통과제 5개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2017 G20 금융포용 액션플랜

분야	추진 과제
중소기업 SME Finance	① 중소기업 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가별/글로벌 개혁 촉진 ②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개혁 및 정책 우수사례 발굴
금융규제 Regulation	③ 금융규제 등 글로벌 금융 표준 마련 시 '금융포용' 포함 ④ 금융부문 평가 시 '금융포용'에 대한 효과적 평가 방안 모색
금융소비자 보호 Consumer protection	⑤ 소비자보호 및 금융이해도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역량 강화 ⑥ 소비자보호와 금융교육 우수사례 공유 추진
결제시스템 Payment system	⑦ 송금전문기관의 은행계좌 폐쇄 문제 대응 ⑧ 국제송금비용 감축 ⑨ 혁신적 기술을 통한 금융접근성 확대
공통 과제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접근 - 민간부문과의 협업 - 금융포용성 관련 데이터 기준 확립 -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 확대 -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2017. 8. 8)

3) GPFI(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금융 포용성 아젠다 논의를 위한 G20 차원의 글로벌 포럼

G20은 향후에도 포용적 금융에 대한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해당 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정책을 반영하여 2017년 7월 포용적 금융에 대한 향후 계획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포용적 금융에 대한 계획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정부에서는 포용적 금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는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를 통한 저신용·취약계층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는 고금리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하여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하여 금융이용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며 정부차원의 정책 서민금융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는 장기연체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통한 연체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한다.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 받는 장기연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추진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중·저신용자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즉, 중·저신용자가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적정한 금리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중금리 사잇돌 대출 취급기관 및 취급 규모 확대를 통한 서민금융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 이후, 실제 많은 성과가 추진 중 및 추진이 예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추진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우선,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제2금융권은 보유중인 소멸시효 완성채권 27조원 규모를 지난달 전부 소각했다. 이로써 141만명의 채무기록이 전산과 서류에서 삭제되어 금융거래가 다시 가능해졌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간 금융권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시민들의 채무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한다. 2018년 1월부터 최고금리를 24%로 일괄적으로 인하한 뒤 단계적으로 낮춰 5년 뒤 20%로 끌어내리려는 계획이다. 만약 이러한 안이 시행된다면 대부업법이 도입된 2002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같아지게 된다.

이외에도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사잇돌 대출 공급한도를 2조원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공급처 또한 확대할 계획이다.

〈표 2〉 포용적 금융 추진현황

추진사항	내 용	추진·적용 시기
카드 수수료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매출 3억원 이하 우대수수료율 0.8% 적용 연 매출 3~5억원 이하 우대수수료율 1.3% 적용 	2017. 8
최고금리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일원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27% → 24% 	2018. 1~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제2금융권 보유 소멸시효 완성채권 27조원(141만명) 규모 전부 소각 	2017. 8
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이상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자 약 80만명의 채무 총량 최대 6조2,000억원 채권 정리 	2017. 10
사잇돌 대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한도 2조원으로 확대 및 공급처 확대 	2017. 6~

자료: 각 신문사 자료 취합·정리

이렇듯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주도 하에 포용적 금융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시중은행들도 포용적 금융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에 있어 시중은행들은 ‘포용적 금융’을 키워드로 하여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은행은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 그리고 신뢰의 금융 확산에 기여하는 ‘더큰금융’을 발표하였다. 더큰금융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우리은행의 신(新)성장 모델이다. 이중 포용적 금융의 실행을 위하여 중금리대출 확대, 취약계층 지원, 서민자산 형성 기여를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 서민금융 중심 점포를 4개에서 33개로 확대하고 고금리대출에 노출되어 있는 중·저신용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하여 제2금융권과의 연계영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중금리대출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실제 우리은행은 7~8% 수준의 가계여신 연체가산금리를 3~5%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으

며 2,093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이미 소각 완료하였다.

신한은행은 내년도 경영계획안에 '포용적 금융'을 핵심 키워드로 포함 시켰다. 특히, 2020년까지 서민·중소기업 금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9조원을 지원하는 '신한 두드림(Do Dream)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청년고용 등 일자리 창출 지원,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와 자금 공급,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 직접 지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사회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 서민금융의 지속적인 확대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금융경력을 보유한 시니어 인력을 채용해 노인 대상 금융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포용적 금융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NH농협금융 또한 포용적 금융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2년부터 '행복채움금융교실'을 통해 청소년 금융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이를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금융에서 소외된 농촌지역 어르신들에게 스마트 금융교육과 보이스 피싱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민은행은 중·저 신용자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 확대 및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등의 방안을 통하여 서민 금융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포용적 금융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정책들이 추진 및 추진 중에 있다. 미국, 영국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지역개투자법(CRA)을 통해 금융 공공성을 정의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 중에 있으며 영국은 금융포용 펀드(Financial Inclusion Fund)를 마련하여 금융소외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선진국 외에 나이지리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의 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의 주도하에 활발한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마이크로금융 은행을 설립하고 국가빈곤근절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포용 프로젝트(Financial Inclusion Project: FIP)를 수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신용보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국내·외의 포용적 금융에 대한 행보는 계속해서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정부 출범 이후 국내의 포용적 금융에 관한 정책 수립이 활발히 이루어 질 것이라 기대되며 이는 시중 은행으로 확대되어 내년에는 민간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절에서는 포용적 금융의 한 축인 서민금융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서민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우체국금융에의 시사점 및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보도록 한다.

Ⅲ. 서민금융시장 현황

방글라데시의 1983년 설립된 그라민은행은 대표적인 포용적 금융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그라민은행은 기존 시중은행이나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었던 수제 바구니 상인 등 빈민들에게 담보 없이 소액 대출을 해주었다. 대출금은 100% 예금으로 충당하였고 대출 회수율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99%에 육박하였다. 이 은행은 1993년 흑자로 전환하였고, 대출받은 600만 명의 빈민 가운데 58%가 빈곤에서 벗어났다. 설립자인 유누스 총재와 은행은 2006년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하였다. 해당 사례는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소액을 대출해주는 마이크로크레딧의 효시가 되었고 이는 포용적 금융의 시작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⁴⁾

포용적 금융의 대표적인 사례는 서민금융일 것이다. 서민금융이란 서민들을 대상으로 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서민에게 제공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민금융시장은 서민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대출 상품들을 말한다. 서민금융 시장 및 지원체계는 은행, 상호금융, 여전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의 민간금융과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뀐드림론 등의 정책서민금융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사잇돌 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을 출시하면서 고금리, 불법 추심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낮은 신용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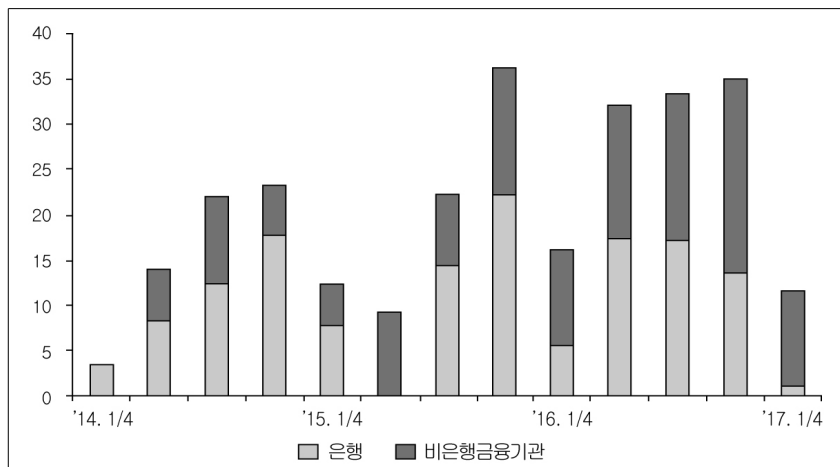
4) 'G20정상회의의 달군 '포용적 금융', 한국에선? (뉴스핌) 2017. 7. 12.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712000023>

서민들을 구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금융시장의 활성화 배경은 외환위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은 리스크가 높은 기업에 대출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개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신용도가 높은 개인이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이 갈 곳이 필요하게 되었다. 더불어 외환위기 이전에 개인고객에게 치중했던 비은행금융기관이 외환위기 이후 은행에게 고객을 뺏기게 되면서 신용도가 낮은 고객을 중심으로 상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고객뿐만 아니라 담보도 제공할 수 없는 고객에 대한 대출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그림 1] 금융업권별 가계부채 전기대비 증감

(단위: 조 원)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7. 6)

이러한 상황은 금융위기 이후 더 심해지게 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자들은 보다 더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고 은행과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민금융은 보다 더 위축되었다. 이는 대부업 및 사금융이 보다 더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결국에는 서민금융시장의 실패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 개입을 통하여 여러 정책적 금융 상품을 출

시하고 이를 바로 잡고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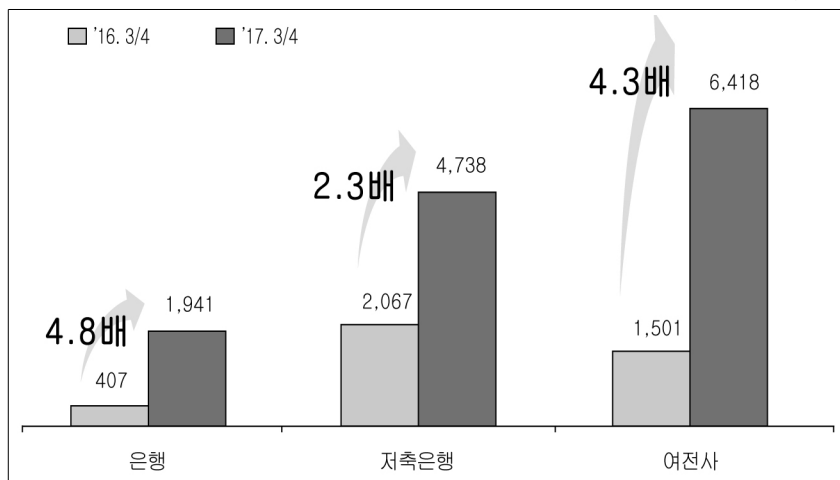
2016년 1월 정부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같은 해 7월 은행권 사잇돌 대출을 출시하였다. 중금리 대출은 일반적으로 4~7등급을 대상으로 7~15% 금리의 개인 신용대출을 말한다. 이후 중금리 대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출범과 생계자금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활발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 2017년 1월에는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 발표, 3월 청년·대학생,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세부 시행방안 발표, 4월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중금리 대출공급 확정 등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대출은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2017년 4월 공급 규모를 확대하였다.

특히, 사잇돌 대출은 2017년 9월 1조원 공급 목표를 달성하였다. 총 취급액은 1조 33억 원으로 약 97,000여 건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 대출들의 인기는 민간 중금리 대출 시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은행·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의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1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그림 2) 민간 중금리 대출 시장 규모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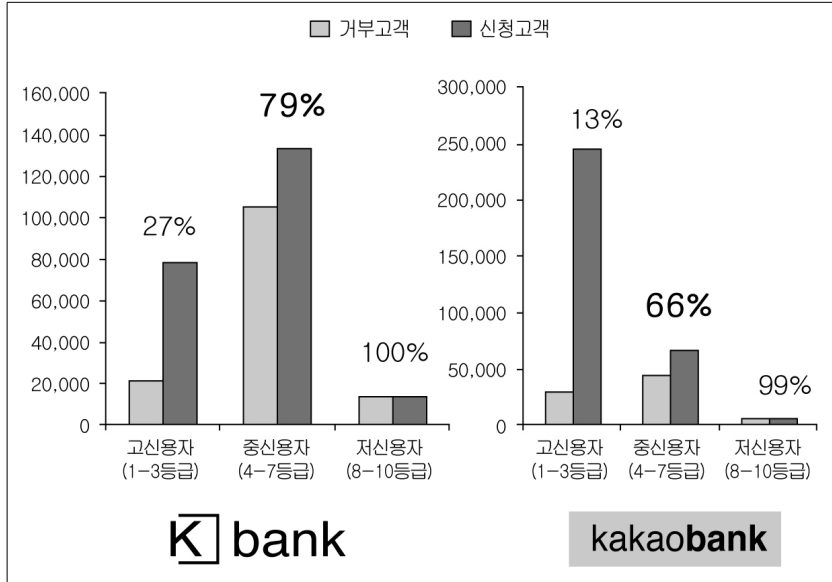


* 상호금융은 상반기 동안 신탁을 중심으로 805억 원 취급

자료: 금융위 보도자료(2017. 9)

(그림 3) 인터넷 전문은행 신용등급별 대출신청 거절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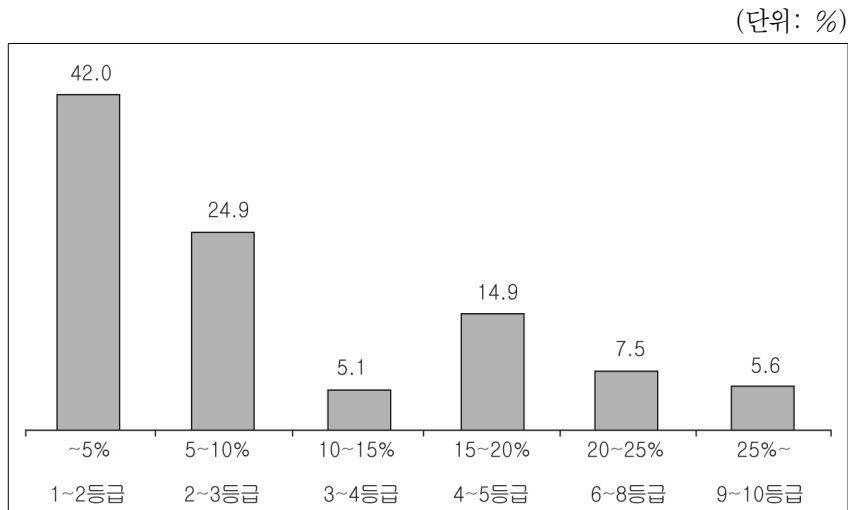
(단위: 건, %)



자료: 각 신문사 자료 취합 및 정리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과 더불어 기대했던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는 다소 미미한 수준이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고객군이 대부분 고신용자에게 집중되었는데 이는 수익창출 중심의 사업영위가 목적인 민간 금융기관의 모습이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와 이를 통하여 시중은행으로부터 외면 받은 고객들의 활발한 금융거래 활로 확보라는 목적에서는 다소 비켜간 모습이다.

(그림 4) 금리구간별 가계신용대출 비중



자료: IBK경제연구소 (2016. 7)

금융위기 이후 서민금융시장의 실패로 인하여 정부의 정책적 상품이 다수 확대되는 등 여러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으며, 민간기관의 시장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책적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급격한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며, 더불어 민간 서민금융 시장의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금융 시장에서는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 및 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서민금융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진정한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특히, 취약계층까지 진정한 포용적 금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을 것인가?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우체국금융에의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IV. 우체국금융에의 시사점

우체국금융은 국가기관으로서 민간금융기관들이 포괄하지 않는 지역 및 계층들에게 금융서비스 제공 및 자산형성 지원, 그리고 공익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역할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체국금융은 고객의 자산형성 지원, 경제생활 지원, 위험 관리, 신용 공급 등의 역할을 모두 수행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우체국은 전국적인 인프라 망을 보유한 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우체국을 활용한 포용적 금융의 방안은 무궁무진할 것이다.

우체국금융이 추진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앞서 살펴본 서민금융에 대한 진입은 금융 소외 측면에서 볼 때 그 의미가 상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체국금융은 전국에 분포에 있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이기 때문이다. 즉, 우체국금융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면 서민금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도서산간지역 등 금융을 다소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 금융소외 계층의 서민금융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2016년 10월 우체국예금이 서민을 위한 신용공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체국금융이 국영금융기관으로서 시장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약, 우체국금융이 보유한 전국적인 망을 활용하여 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면 해당 범위와 규모 면에서 기존에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한 계층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는 진정한 포용적 금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미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 우편 업무와 금융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주요국들의 경우, 해당 금융 업무에 있어 예금 외에 대출업무를 위탁 또는 직접 운영함으로써 농어촌 및 소도시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진정한 포용적 금융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외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우체국금융의 서민금융시장로의 진입이 더 이상 늦어진다면 이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물론 우체국금융이 서민금융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국영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마땅하지만, 이와 더불어 대출 시행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우선은 우체국금융은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경험이 없고 전국에 지점이 분포되어 있는 만큼 기존에 신용정보가 존재하지 않거나 다소 충분하지 않은 고객까지 우체

국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고객이 전국에 존재하는 만큼 타겟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서민금융 시장에는 이미 플레이어들이 다소 포진해 있는 만큼 그들과의 경쟁관계에 있어 우체국이 어떠한 전략을 수립할 것이며 경쟁구도 속에서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당초의 서민금융시장 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즉 포용적 금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고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험부담에 대한 한 가지 방안으로서 보증보험이 결합된 상품을 일정기간 유지하면서 위험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보증보험이 결합된 상품만을 가져갈 수는 없기에 궁극적으로는 사업의 수행과 동시에 포용적 금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출범과 세계적 흐름은 포용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우체국금융도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에 보다 더 충실하고 금융의 범위를 넓혀 나감으로써 전국에 있는 서민들의 지킴이로서의 더 확고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포용적 금융수행을 위하여 우체국금융이 서민금융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이제는 필연적이라 할 것이다. 우체국금융은 포용적 금융수행을 위하여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서민들, 금융의 혜택을 받고 싶으나 시중은행에서 받아주지 않아 어려움에 내몰리고 있는 저신용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이제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보야말로 포용적 금융의 수행이며 국영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김민진(2014), “우체국금융의 금융포용 역할에 관한 소고”, 우정정보 2014 봄호.
- 김정렬(2016), “국내서민금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6년도 한국경제학회 정책 세미나, 서민금융 활성화와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 「금융포용의 개념과 전략과제」(2014), 금융 VIP 시리즈, 한국금융연구원.
- 「G20,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2017. 8. 8.
- 오주연(2017), 서민금융시장의 특징 및 우체국금융 시사점, Posid E&F Review 10월호.
- 유신익, 황민경(2015), 금융포용 동향 및 전망,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경제이슈 2015-12
- 「사잇돌 대출 공급액 1조원 달성」,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7. 9. 29.
- 「중금리 대신신용대출 시장의 이해」, IBK경제연구소, 2016. 7.
-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 2017. 6.
- 「포용적 금융」 추진배경 및 향후계획, 금융위원회 기자간담회 자료, 2017. 7. 26.
- G20정상회의 달군 '포용적 금융', 한국예선? (뉴스핌) 2017. 7. 12.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712000023>